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예방과	담 당 자	• 안전예방팀장 김문성 ☎440-1891 • 담 당 자 장수정 ☎440-189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16재단, 세월호 참사 9주기 맞이 노랑드레언덕 조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16재단이 인천가족공원내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옆 동산에서 이달 25일 오후 1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노랑드레언덕」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노랑드레언덕」은 2021년 첫 행사 이후 언덕 이름짓기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순우리말인 ‘드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점잖은 무게, 즉 서로간의 존중’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피해자를 추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마음을 담아 진행되며, 아울러 노랑드레언덕 조성 후 시민들을 위한 미니콘서트, 폴라로이드 사진찍기, 간식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오는 4월 15일 인천애뜰광장에서 ‘9주기인천추모문화제-내일을 위한 그리움’ 행사가 진행된다.

김기원 시 안전예방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존중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랑 드레 언덕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염원을 담은
노랑 드레 언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노란 바람개비로 기억과 염원의
마음을 담아 언덕을 채워주세요.

노랑 드레 언덕은?

2021년 추모관 앞에 최초로
구성된 노란 바람개비 언덕으로,
이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드레'는 순우리말로
'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기억을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이 담긴 이름입니다.

부대행사

플라로이드 사진 찍기, 미니 콘서트 등

행사문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 032-512-6576



주최



생명·안전·역승
4·16재단

주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세월호참사 9주기 인천추모위원회

2023. 3. 25.(토) 오후 1시

